

하수관거 사업 문제점 “상응한 조치”

군산시, 8년 동안 부실시공 및 공사비 편취의혹 등 BTL 사업 입장 발표

군산시가 지난 2011년 6월 준공 이후 8년 동안 부실시공 및 공사비 편취의혹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던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김영준 군산시장은 군산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 정비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의 부실 의혹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에 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이를

구명하고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 2명, 군산시 2명, 시민단체 2명, 민원인, 시행사, 운영사로 구성된 9명의 공동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8월 5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를 인용한 군산시는 실제 공사와 준공 도면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로 관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일부 확인됐으며 공사 진행과정과 공사완료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나 제반 증빙서류가 부존재하거나 부실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사 측은 문제점이 지적되면 미비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사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사항들로 보이므로 의혹들이 사실이거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현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증 등 거쳐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하수관거 BTL 정비사업은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총사업비 716억원을 100% 부담하는 대신 준공 일로부터 20년간 시행사에 임대 운영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이 제기됐고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준공 도면과 공사 현상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전체 공정에 비춰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28일 군산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군산시, 1000여명 참석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교육은 2019년부터 노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무교육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연간 4시간 이상 의무화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

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인권 침해 사례 및 국내의 동향 등 실생활에 적합한 현실적인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각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노인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나아가 각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에 앞장서 시종 운영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인구늘리기 릴레이 첫 번째 협약 체결

연중 기관·단체·기업간 협력 통해 자생적인 시민운동 전개

익산시는 28일 원광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백준홍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 피성희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장, 이정환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릴레이 첫 번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8일 원광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등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릴레이 첫 번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맹수 원광대총장은 “대학교도 학생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감소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익산시 인구늘리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익산을 사랑하는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앞장선다면 극복할 수 있다”며

“오늘 첫 번째 협약을 계기로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실천협약의 추진배경은 심각한 인구감소가 미래 지역사회 존립기반을 위협

할 수 있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늘리기 실천에 시민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시점이자, 기관·단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인구늘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익산=장민천 기자

군산시, 비응도 일원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군산시는 비응도 일원을 또 하나의 관광 메카로 만들어 새만금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응도군(軍)부대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4만8245㎡(상업용지)의 면적에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등 서해안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1년 사시사철 천혜의 바다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경기침체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만금 국제공항 여타 면제, 정부주도 공공매입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최근 가속화되는 신시가지개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무너도 관광개발 사업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새만금 지역 관광 사업이 활력을 찾아가는 한편 인근의 비응항 주변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군산시는 오는 9월 24일 사업 참가의향을 접수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25일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공모지침에 의한 평가를 거쳐 11월 1일 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유치지원단 (☎063-454-4041~404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관내 유망 중소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군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납세

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종료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 군

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일자리 창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내달 20일까지 접수...12명 선정, 총 상금 400만원

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창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회적경제·관광·농촌지역 활성화 분야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자유 제안,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민간 일자리 연계 가능한 사업 등 참신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효과성, 적합성, 실효성 등이며, 최종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12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50만원, 우수상 3명 각 30만원, 장려상 6명 각 15만원 등 총 400만원을 시상한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참신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며 “새로운 일자리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하면 된다.

익산=장민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